충장로 금싸라기 땅에 6층 건물 7년 간 방치 왜?

한전, 변압·개폐기 등 지중화 계획해 매입…안전문제로 사업 철회
'재정 건전화' 일환으로 매각 나섰지만 땅값 절반 하락에 매각 안돼
상인들 "충장로 미관 해치니 한전은 대승적 차원에서 가격 낮춰야"

광주 대표 상권인 광주시 동구 충장로에 한국전력공사 소유 6층짜리 건물이 7년 간 사실상 방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은 당초 이 건물을 매입해 충장로 내 변압기·개폐기 등 전력기기를 지중화 하려는 계획이었지만 지반 침하 등의 안전문제가 우려돼 사업을 철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전은 매입 금액 수준에서 건물 매각에 나섰지만, 충장로 땅값은 매입 당시보다 절반 가까이 하락해 매각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장로 상인들은 주요 골목에 자리한 이 건물이 공실로 유지되면서 도심 미관을 해쳐 주변 상권에도 피해를 주고 있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8일 한국전력 등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지난 2017년 6월 27일 연면적 1145.972㎡의 광주시 동구 충장로 93-8번지 건물을 46억원에 매입했다.

한전은 '지역공헌형 배전스테이션' 사업을 위해 해당 건물을 매입했다. 지역공헌형 배전스테이션은 변압기와 개폐기 등 전력기기를 건물 지하에 모아 일대에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전력배전시스템이다. 충장로와 같은 구도심에는 변압기가 거리 곳곳에 설치돼 있는데, 이를 한 곳에 모아둠으로써 도심 미관 개선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봤다.

그러나 한전은 막상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으나, 난관에 부딪혔다. 전력 공급을 위한 케이블 매설을 위한 공사를 진행하려고 보니 건물 주변의 지반침하가 우려됐기 때문이다. 이미 건물 인근 지하는 상·하수도 설비로 가득해 추가로 전력구(케이블 등을 연결하기 위한 터널)를 만들 경우 지반 침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했다. 결국 한전은 지난 2021년 10월 배전스테이션 사업을 철회할 수 밖에 없었다.

한전은 해당 건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는데, 최근 한전의 부채가 심각해지면서 '재정 건전화'의 일환으로 해당 건물 매각에 나섰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한전이 해당 건물을 매입할 당시 충장로 일대 상가건물 평당(3.3㎡)가는 5500만원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3000만원으로 급감했다. 한전은 매입가격 이하로는 판매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건물이 수년간 방치되다 보니 충장로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이 주변 상인들 사이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당장 건물의 얼굴격인 1층만하더라도 굳게 닫힌 철제 덧문 위로 '매각'이라고 적힌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있고,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공익사업 홍보 현수막이 건물을 뒤덮고 있다.

정일성 충장로 1·2·3가 상인회장은 "한전이 국내 최대 규모의 공기업인만큼 대승적으로 결단을 내려할 때다"라면서 "매입 가격에 되판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니, 더이상 고집을 부리지 말고 주변 상인들을 위해서라도 매각가를 내리는 결정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글·사진=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8일 광주시 동구 충장로의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6층 높이 건물. 한전은 전력기기 지중화 사업을 위해 이 건물을 매입했지만 사업을 철회하고 매각에 나선 상태다.

'순살 아파트' 광주 선운, 철근 누락 사실로

감사원 보고서 공개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102개 공공주택사업지구 가운데 23개 지구(22.5%)에서 철근이 누락된 '순살 아파트' 부실이 확인됐다. 광주 선운 2A-2지구 아파트의 경우 구조 개선을 잘못해 철근을 적게 넣은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8일 이러한 내용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관 특혜 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무량판 구조는 수평 구조 건설 자재인 '보'를 없애고 슬래브와 기둥만으로 하중을 지지하는 '기둥강화 공법'을 쓰는 것이 특징이다. 보 없이 기둥이 직접 슬래브를 지지하기 때문에 기둥이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철근(전단보강근)을 튼튼하게 감아줘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지하 주차장 지붕 구조물이 붕괴하면서 LH가 발주한 무량판구조 아파트 시공에 전단보강근 누락 사실이 무더기로 확인된 바 있다.

당시 사고로 촉발된 이번 감사를 통해 16개 지구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나머지 7개 지구는 시공단계에서 전단보강근이 누락된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무량판 부실시공 23개 지구 중 LH로부터 정식 구조 도면 하도급 승인을 받은 설계사무소가 도면을 작성한 경우는 없었다.

감사원은 LH에 소속 직원 37명에 대해 문책·주의를 요구하거나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

또 검찰에 LH 전·현직 직원 각 1명과 업체 소속 민간인 3명 등 총 5명에 대해 수사를 요청하고, 7개 민간 업체에 대한 수사 참고 자료를 함께 보냈다.

LH에는 미흡한 제도와 지적된 문제 9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사업용 가계대출도 대환"…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대

13일부터 접수…대상 채무도 확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대환대출의 지원 대상과 대상 채무를 확대해 오는 13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7% 이상의 고금리 대출 또는 은행에서 만기 연장이 어려운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올해 5000억원 규모로 신설됐다.

기업당 5000만원 한도로 10년간(거치기간 없음·원금균등분할상환) 지원하며 연 4.5% 고정금리를 적용한다.

지원 대상은 기존에는 NCB 기준 신용점수 839점(구 4등급) 이하 중·저신용 소상공인이었으나 신용점수 919점(구 2등급) 이하 소상공인까지로 확대됐다.

대환 대상 채무는 사업자 대출 외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가계대출 중 대출일 포함 3개 반기 내 사업용도로 사용한 대출(사업용도 가계대출)도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1000만원까지 대환이 가능하다.

신용보증기금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가계대출을 대환한 이력이 있는 소상공인은 당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했던 은행의 동일한 지점으로 신청해야 한다.

또 기존에는 지난해 8월 31일 이전에 실행한 대출까지 지원했으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발표일인 지난달 3일 이전에 실행한 대출로 약 1년 확대됐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전국 77개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소진공에서 지원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12개 취급 은행인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경남, 광주, 아이엠, 부산, 전북, 제주은행에 내면 심사를 거쳐 최종 대출 여부가 결정된다.

/연합뉴스

"한마리 6000원대"…대형마트 갓성비 '치킨 대전'

이마트, 어메이징 완벽치킨 출시

배달 치킨 가격이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대형마트의 가성비(가격 대비 품질) 치킨 경쟁에 불이 붙었다.

이마트는 오는 9일 6000원대의 '어메이징 완벽치킨'을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배달 치킨 가격의 3분의 1 수준이다. 〈사진〉

국내산 닭고기에 피코크 비밀연구소가 다양한 실험 끝에 개발한 '비법 파우더'(쌀가루+15종의 향신료)를 더해 치킨 본연의 식감과 풍미를 살렸다고 이마트는 소개했다.

배달 치킨과 달리 대형마트 치킨은 구매 후 바로 먹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에어프라이어 190도에 5분간 익히면 바삭한 식감이 살아나도록 하는 레시피를 적용했다.

이마트는 장바구니 물가 안정과 본업 경쟁력 강화라는 취지에 맞게 기간이 정해진 한정 판매가 아닌, 연중 운영 방식으로 상품을 기획했다.

이를 위해 지난 7개월간의 사전기획과 원료 대량 매입으로 원가를 크게 절감했고, 오는 12월까지 사용할 닭 원료육도 100만팩 분량 이상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경쟁사들도 치킨을 즉석조리 식품 대표 상품으로 부각하며 판촉에 열을 올리고 있다.

2022년 6월 출시된 홈플러스의 당당치킨은 현재까지 1000만팩 이상 팔리며 '베스트셀러' 반열에 올랐다.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2년 만에 10여종까지 상품군을 확대했다.

당당시리즈 역시 1만원을 밑도는 가성비를 내세운다. 당당 후라이드 치킨은 7000원을 밑도는 가격으로 '오픈런'(물건을 구매하고자 영업시간 전부터 줄을 서서 대기하는 것) 현상까지 불렀다고 홈플러스는 소개했다.

롯데마트·슈퍼는 1만원대 초반 가격의 '큰 치킨'으로 대응하고 있다. 월평균 8만개가 팔리는 인기 상품이다.

롯데마트는 지난해 12월 일반적인 후라이드 치킨 외에 시즈닝 양념을 곁들인 크런치 콘소메 치킨을 선보여 고객의 호응을 얻었다.

/연합뉴스